

경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두 얼굴의 대형마트

4 홀대받는 지역상품

대표 브랜드 쌀도 행사용 취급

대형마트들이 지역 친화 경영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유명 브랜드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지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상품 판매는 외면하고 지역은행과 예금거래도 하지 않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는 인색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생색내기용 기획행사에 지역 상품 이용=이마트가 개점 17주년을 기념해 지난 11~17일까지 진행한 사은행사에서 전남의 대표 브랜드 쌀인 A쌀을 3만2800원(10kg)에 판매하면서 같은 브랜드 쌀 5kg을 추가로 증정했다. A쌀은 소비자가 단체가 뽑은 최우수 브랜드쌀에도 수차례 선정된 최고급 쌀로 기존 판매 가격은 10kg 3만5500원이었다.

할인에다 증정품까지 과격적인 조건에 판매됐지만, 이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는 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제품 상세내용에 생산년도가 2010년으로 되어있길래 주문했는데 햅쌀이 아니라 작년에 생산된 쌀이네요. 생산년도 표기에 문제가 있네요. 게다가 도정일자도 한 달이 지난 10월 8일이네요.”(아이디 daor)

“뽕같은 돈 내고 산지배송 할 걸 그랬나봐요. 20일 도정 지난 쌀이 왔네요. 다음에는 여기서 주문 안 할 듯(아이디 wor~)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A쌀은 이마트의 ‘2010년 가격혁명 상품’으로 팔리면서 일부 소비자들에게 ‘가격 거품이 많은 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대형마트가 쌀값 하락을 주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특성상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주농민회 이상만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유통을 장악하면서

는 농협, 영농조합 등이 대부분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입점비용을 늘리고 지역상품 고정판매 코너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년 중 100일 이상 할인행사 참여 등 대형마트의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많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대형마트에 입점을 거부한 지역 제조업체도 있다. 이 업체가 만든 생활용품은 광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1조2597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6873억원으로 5년 사이 4275억원(33.9%)이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3000㎡ 이상) 매출 증가율이 전국 7대 도시에 1위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현지 법인인 광주신세계는 제외)이 지역에서 올리는 매출은 매년 1조원이 넘지만, 2007년 이후 지자체에 낸 지방세(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포함)는 롯데쇼핑 및 롯데마트가 연 평균 31억원, 신세계 이마트가 46억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2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4개 대형마트 중 광주신세계 이마트를 제외하고는 지역 은행과 예금거래하는 대형마트는 한 곳도 없는데 이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미미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만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본사의 지점대로 움직여야 한다”며 “지역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등의 문제는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천~3천개 납품업체중 광주는 62곳 불과

그나마 할인행사 참여 등 무리한 요구 일쑤

막대한 매출 불구 지역자금 역외 유출 심각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행사물량과 가격인하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보통 쌀 20kg 1포가 5만원대에 팔려야 생산원가가 맞는데 대형마트들이 3만원대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요구에 입점 거부하는 업체도=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평균 2000~3000여 곳에 이른다. 광주지역 대형마트에 입점한 지역업체는 롯데마트 16개, 홈플러스 22개, 이마트 24개에 불과하다.

입점을 한 지역 업체도 농수축산물 유통업체나 가공식품을 납품하

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도 선정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요구조건을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않고 유기농 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심각=대형마트들이 지역 유통을 장악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행 세액 공제율 7%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였으며, 48.0%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했다. 또 10곳 가운데 7곳(73.4%)은 앞으로 5년 후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이라는 응답했다.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는 ‘세제 감면 등 조세 지원’(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97.11 (-2.02)
▲ 코스닥지수	505.74 (+2.70)
▲ 금리 (국고채 3년)	3.35% (+0.03)
▲ 원·달러 환율	1,144.90원 (+15.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임시투자세액 공제 그대로 유지를”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9곳 ‘폐지’ 반대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최근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0%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다는 응답도 9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선 ‘상시 운영’이 48.2%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연장’이 37.0% 응답해 이 제도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행사에서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김재근 의원 등이 참석해 화합 포퍼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산단 클러스터 사업 성과 ‘쑥쑥’

광주 광응용 사업 등 6개 광역권별 성공사례 소개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씨케어코리아는 지난 2007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광응용미니클러스터와 손을 잡았다.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던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기’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광주과기원 연구진 등 전문기술을 활용, 1년여동안 연구 끝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응용미니클러스터는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특허·보급 승인,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했다. 제품 개발이 회사는 내년 17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63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광응용미니클러스터 활동의 성공 사례

다.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단단지 광역클러스터 사업 5년째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5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6개 광역권별 성공사례의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의 ‘지식(IT)기반 융복합 광역클러스터 구축’, 동남권 ‘조선기자재의 입체적 마케팅 지원’, 호남권 ‘광응용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 대경권 ‘부품소재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강원권 ‘생명공학이 자동차 부품 개발’, 충청권

‘인형 전통휠체어 개발’ 등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또 광주 광산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일 기술교류 컨퍼런스’도 열렸다. 컨퍼런스는 미국 애리조나 광산협회 로버트 폴 브로우 회장과 일본 치토세 과학기술대 코지 이시다 교수, 한국 광기술원 신철호 기술사업화센터장이 각각 ‘아리조나주 광기술개발 동향’과 ‘세계 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광주 광클러스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봉규 이사장은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출범한 지 벌써 5년째 됐다”며 “앞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성과를 확대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소형냉장고 출시

미니 백색가전 라인업 구축 ‘싱글족’ 공략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싱글족을 겨냥한 미니 백색가전 라인업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싱글족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우일렉은 17일 국내 최초로 유리도어가 적용된 인테리아형 120L 소형 냉장고(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 출시로 대우일렉은 7kg 드럼세탁기, 15L 전자레인지 등과 더불어 싱글족용 미니 백색가전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 대우일렉은 내수 매출 중 싱글족을 겨냥한 미니가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수 기준으로 2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급 40% 정률 지급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연합뉴스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썩!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